

교안 개발 : 리딩(R) 리딩(L) 에듀 리딩(Reading) 리딩(Leading) 에듀는 '독서로 생각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독서논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평화롭기 위해

채인선 글 | 김은정 그림
프린틀러린이 | 14,000원 | 70쪽 | 초등 고학년

교안 개발 : 이주희

책 소개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함께하는 세상> 시리즈의 둘째 권이에요. 이 시리즈는 어린이에게 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채인선 작가가 쓴 동화를 모은 것으로, 글만큼이나 강렬한 이미지들이 행복·평화·자연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림책은 유아를 위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초등학생 독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제안해요.

이 책은 '평화'를 의인화하여 평화가 지쳐 쓰러졌다는 설정에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평화를 잇자, 울다 지친 평화가 목이 쉬어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 평화를 대신해서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현실인 듯 현실이 아닌 듯, 판타지와 현실이 절묘하게 섞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평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시작하기 '평화'를 소개해요

1. 평화참여연대(평참여) 사무실에 대표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역 부근의 파출소에서 한 울보 노인을 찾았다면서요. 책을 참조하면서 울보 노인, 즉 '평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8~11쪽)



독후활동 주제 1 평화는 무엇 때문에 쇠약해졌을까요?

1.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충주의 고즈넉한 언덕에 '평화의 쉼터'라는 이름의 퇴직 수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의 간곡한 청에 따라 평참여 대표는 '평화'를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평화'는 아주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평화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쇠약해졌을까요? (12~15쪽 참조)



2.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회복이 더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16~17쪽 참조)



3.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적과 우리 편을 가르치는 일부러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어느 편이냐고 편 가르기를 하는 일은 전쟁 후유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편을 가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대표가 말을 합니다. 이때, 소장이 말을 받아 한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56쪽 참조)



④ 평화가 평화롭기 위한 3단계 계획 - '평화'는 오나요?

1. '평화'를 잘 돌보고 사회가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다음 제시된 것은 평화가 평화롭기 위한 3단계 계획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 1단계 : 대책회의 - 6인이 말한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연구원	
국방부 장관	
대표	
경찰청장	
시인	
소장	

● 2단계 - 평화 대리인을 아기로 하자는 제안, 핵심 문장

연구원	
국방부 장관	
대표	
경찰청장	
시인	
소장	

● 3단계 - 아이와 함께 평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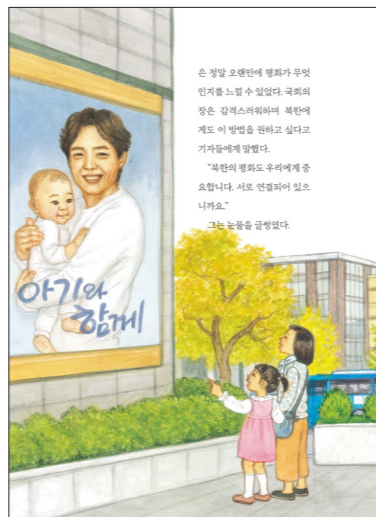
공익 광고에 인기 연예인이 아기를 안고 나와 “평화를 지켜요. 이 아기를 지켜요.” 하고 속삭이는 캠페인 벌어지고, 빌딩 벽에 ‘평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표어가 커다랗게 나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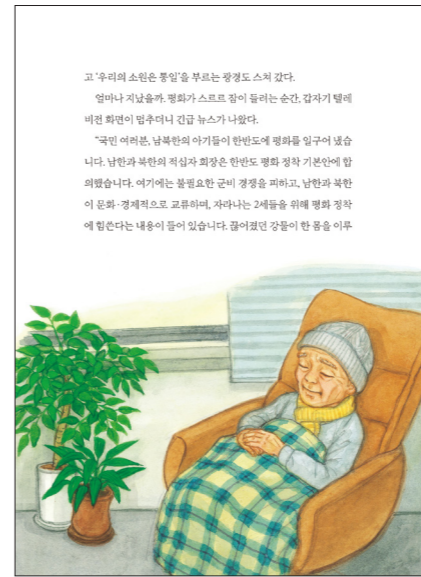
.....

.....



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국회의장은 감격스러워하며 북한에 게도 이 방법을 권하고 싶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북한의 평화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눈물을 감췄다.

1. 다음은 '평화'의 그림입니다. '평화'의 표정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

.....

.....

.....

.....

.....

.....

.....

.....

2. 몸이 회복된 평화는 평화의 쉼터에 감사 편지 한 장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람들 속으로 떠났습니다. 다행과 갈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아기가 곳곳에서 울어 주는 덕분에 '평화'가 한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만약 여러분이 '평화'를 만나고 싶다면 깔깔대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라고 합니다. 또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미소를 드리운 채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그마한 체구의 백발노인이 있다면 그가 바로 '평화'일지 모른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평화의 대리인이 된 아기들의 웃는 얼굴을 따라 그려 볼까요?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66~67쪽 참조)

[준비물: 스케치북, 물감 또는 색연필, 연필과 지우개 등]